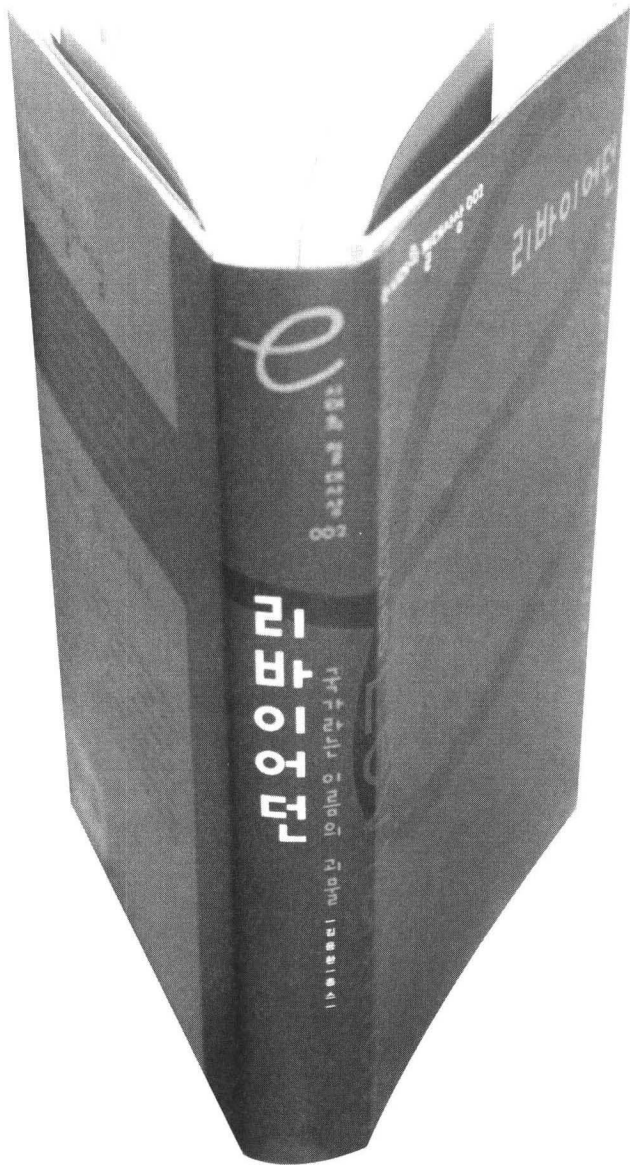


'e 시대의 절대사상' 홉스에 대한 오해를 풀다

김용환의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 김용환 지음 | 살림출판사 | 344쪽 | 값 9,900원

● 이 글을 쓴 박홍규는

영남대학교 법과대학과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영국 노팅엄대학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을 연구했으며 일본 오사카대학교, 리츠메이칸대학교, 고베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노동법》(삼영사) 《내 친구 빈센트》(소나무) 외 다수가 있으며, 역서로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문화와 제국주의》(문예출판사) 외 다수가 있다.

최근 고전의 재해석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 살림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내고 있는 'e시대의 절대사상'도 그 하나이리라. '절대사상'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그 시리즈는 "이 시대에 맞는 현대적 감각의 고전을 만들고자", "그 분야에 대해 가장 정통하면서도 오랜 연구 업적을 쌓은 학자들이",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듯 고전이 탄생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주변 환경, 그리고 고전에 담긴 지혜를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서 있다.

그 시리즈의 하나로 나온 김용환의 《리바이어던》도 그런 취지에 적합하게 씌어진 훌륭한 고전 해설서이다. 우선 그는 홉스에 대해 "가장 정통하면서도 오랜 연구 업적을 쌓은 학자"로서 이미 1999년에 "국내에서 나온 홉스 철학 연구서 가운데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홉스의 사회·정치철학》을 저술했다.

그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듯" 《리바이어던》을 자신의 유학시절 홉스의 무덤을 찾아 나선 이야기로 시작하여 1970년대 대학생으로 가졌던 박정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회상한 뒤 영국에서 홉스를 공부한 과정을 설명한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산 나로서는 당시 홉스를 박정희만큼 싫어했다. 홉스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반민주주의자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그런 평가가 일반적이다. 가령 《연세필독도서》에서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 복종을 강조한 홉스는 전제군주제를 이상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사회질서의 주창자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독재정권의 옹호자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세계의 사상 100선》은 홉스가 "절대군주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용환은 제1부에서 홉스의 삶과 작품을 설명하면서도 그런 평가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 부분이 너무나 짧게 쓰여졌기 때문이리라. 사실 나는 그 점에 아쉬움을 갖는다. '고전이 탄생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주변 환경'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홉스의 인간론을 설명하면서 특히 홉스의 평화애호주의와 사회계약론을 소개하고, 국가론을 설명하면서, 그를 절대군주론자에서 유사민주주의자로 평가하며, 홉스의 자유론, 법과 정의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를 반민주주의자로 싫어했던 나의 과거나 최근까지의 독재정권의 옹호자라는 비판에 대한 재평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왜 <리바이어던>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제1부 제6장에서

그런 재평가를 포함하여 홉스의 현대적 의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듯해 아쉽다. 가령 김용환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표현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전쟁은 결코 승리함으로써 끝나지 않는다”는 홉스의 말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충분인가? 홉스는 당시의 의회가 부르주아 이익의 대표기관이고 의회의 승리도 권력의 교체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국민의 보다 근본적인 정치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리바이어던》을 썼다. 그리고 그 정치의식의 전환이란 바로 국가란 개인의 생명 보존을 위한 것이고, 개인이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 국가에 불복중한다는 새로운 관점이었다. 따라서 그를 더욱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선구자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홉스는 20년간의 내란이라는 상황을 앞에 두고 그 어느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국가를 만든 이유가 인권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 정치원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루소는 홉스의 프랑스판에 불과했다.

《리바이어던》의 본문 해석도 더욱 더 집약적이었으면 좋았을지 모른다. 내가 이해하는 제1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어떤 정치원리를 공유하고 행사해야 하는지를 사회계약설로 설명했다. 이어 제2부는 사회계약에 의한 사회의 균중에게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표를 선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대표민주주의를 설명했다. 그리고 후반부인 제3, 4부에서는 근대시민사회의 형성에, 봉건세력과 함께 중대한 장애 세력인 종교의 정치개입 배제를 주장했다.

요컨대 홉스는 인간의 최고가치는 자기보존이고, 따라서 전통적 권위나 신의 이름에 의한 비합리적인 지배는 배제되어야 하므로, 진정한 권력의 기초는 사회 구성원의 동의(계약)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정치권력은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권위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권력 운용은 모든 구성원의 이익과 깊이 관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권과 권력의 상호의존관계를 해명한 근대 민주주의 국가론의 원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홉스 재평가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오해 또는 악용의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김용환이 언급하지 않은 점도 유감이다. 가령 현대 정치사상이 가운데 독일의 슈미트(1888~1985)만큼 홉스에 열광한 사람도 없으리라. 그 전의 독일 정치사상이란 칸트든 헤겔이든 간에 개

인의 자유와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근대자연법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개인이 국가보다 앞선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 의한 제국의 성립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주어진다, 개인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한 것이었다. 슈미트 역시 그러했으니 홉스와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었다.

슈미트는 1919년에 성립된 바이마르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전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게 하자고 주장하면서 홉스가 주장한 주권의 절대성과 루소의 국가사상을 자기 사상의 근거로 인용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홉스의 사상은, 인권과 자유를 무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지배기술만을 정당화하는 슈미트의 정치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슈미트 같은 어용학자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지도 모르나, 문제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믿는 보수적인 계층이 두텁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홉스를 반민주주의자로 오해하는 것이 그런 잘못된 믿음에 중요한 고전적 근거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홉스에 대한 적극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김용환의 《리바이어던》은 그런 재평가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전은 역시 고전 자체로 읽혀야 한다. 《리바이어던》은 출판된 지 35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완역이 없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1976년 번역서는 전 4부 가운데 앞의 제1부와 제2부만 번역한 것이다. 《리바이어던》 정도로 유명한 《군주론》의 번역이 지금도 14종 이상 나온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

제1부 ‘인간론’, 제2부 ‘국가론’에 비해, 제3부 ‘그리스도교 국가론’과 제4부 ‘몽매의 세계론’은 종교적이어서 번역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당연한 일은 아니다. 적어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의 고전이라면 이제는 완역이 나와야 한다. 이런 일이야말로 국가가 말아야 한다. 학술진흥재단 같은 곳에서는 이런 고전 번역에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한다.

사실 완역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 가령 《리바이어던》에서 아직 번역되지 못하고 있는 제3, 4부에서 홉스는 교회가 세속적 권력을 갖는 것에 반대하고 국가가 종교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자유주의와 통할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에 대한 주권자의 지배권을 부정한 점에서 근대적인 ‘자유와 평등’의 기초를 주장했다는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속히 《리바이어던》의 완역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김용환의 훌륭한 연구서들도 제대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